

2000년대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와 세속화 연구 - 배수아와 정이현을 중심으로

강지희

1. 2000년대 소설의 윤리 속에서 누락된 것
2.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배수아의 경우
3. 여성소설 비평의 세속화-정이현의 경우
4. 신성화와 세속화 사이의 구조적 동형성

국문요약

본고는 한국문학사의 장 안에서 ‘여성문학’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2000년대의 여성소설 비평들을 재고하고자 쓰여졌다. 2000년대 소설의 특징을 규정하고 새로움을 찾는 모색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것은 2005년경부터였다. 이때의 소설비평들은 1990년대와의 변별점을 위해 현실과 내면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강조했고,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타자성과 윤리라는 키워드와 접촉하기 시작한다. 이 담론 속에서 좋은 여성성은 윤리성과 등치되며, 사실상 차이로서의 여성의 자리를 지우고 있었다.

당대 최신 여성주의 담론과 소설비평이 만나면서 어떻게 여성문학의 자리가 소거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에 출간된 배수아의 『에세이스트 책상』과 정이현의 첫 번째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와 장편 『달콤한 나의 도시』를 둘러싼 비평들을 메타적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검토하였다. 이 두 작가의 비평들을 표본으로 삼은 이유는 여성 소설들 안에서 배수아와 정이현에 대한 비평들이 가장 상이한 독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배수아에 대한 비평들은 주인공이 맺은 과거의 동성애적 관계에 대해 예술적이고 정신적인 면면을 강조하며, 성적 차이를 소거한 채 '보편적' 지점에 대해 말한다. 반대로 정이현에 대한 비평들에서는 주인공이 자본주의 속에서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여성적인 '특수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이 강조된다.

그러나 언뜻 신성화와 세속화로 나뉜 것처럼 보이는 두 작가와 관련된 담론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체적 전략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수아와 정이현을 둘러싼 2000년대적 비평들은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타자성이 생산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방식이 어떻게 '다름'과 '같음'의 원리를 변증법적 계기 속에서 통합시키는지 보여준다. 배수아의 동성애적 관계는 그 '다름'이 신성화되며 모든 사회적 규범과 관계를 삭제해버린 순수성과 절대성을 획득하며, 정이현의 소비주체의 '다름'은 세속화되며 사회적 규범에 더 없이 잘 길들여진 여성적 주체를 탄생시킨다. 이는 결국 여성들이 가진 현실적 욕망의 실존을 가리는 것처럼 보인다. 2000년대 여성소설 비평의 수행방식과 그 한계를 살피는 이 연구는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사회에서 페미니즘 물결이 몰아치며, 다시 어떻게 여성소설을 비평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작은 참조점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여성소설비평, 배수아, 정이현, 탈성화, 신성화, 세속화)

1. 2000년대 소설의 윤리 속에서 누락된 것

지금 여성소설에 대해, 여성소설 비평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페미니즘은 단순 이전에, 일상생활 전체를 범람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등장했다. 사회적으로는 『맥심 코리아』 표지 논란과, 〈소라넷〉 사태에 이어 강남역 살인사건, 성우 김자연 씨의 해고 등을 둘러싸고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학 장안에 기입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0월 ‘#문단 내 성폭력’ 말하기 운동에서부터였다. SNS를 통해 억압 되어온 많은 목소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려는 노력과 논란이 있었다.¹⁾ 이 과정을 거치며 많은 문학잡지에서 페미니즘 비평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성폭력과 관련해 사회적 충위를 다각도로 재현하는 박민정, 강화길, 임현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비평장에서 활발하게 조명되었고,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함에 따라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포착하고자 하는 저널리즘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 등장했다고 말해지는 페미니즘 문학들에 대한 평가가 문학장 안에서 긍정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는 ‘미학성’과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비판적 논평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들여다보면 요즈음의 여성소설 비평은 어떤 곤혹 속에 빠져있는 것 같다. 2010년대인 현재 좋은 여성소설이란 무엇인가. 여성소설에 대해 말할 때, 텍스트의 미학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1) 2016년 가을 이후 문학장 안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에 대한 정리와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소영현,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동네』, 2017년 가을호; 양경언, 『#문단 내 성폭력 말하기 운동에 대한 중간 기록』, 『여/성이론』, 2017년 하반기.

의미와 효과를 갖는가. 소설의 미학적 논리 역시 시대와 계속해서 쟁투하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성급히 어떤 판단 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에, 비평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는 ‘문학성’과 ‘미학성’이란 단어를 구성해온 담론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소설을 말하기에 앞서 느끼는 곤혹은 우리가 그 용어를 의도적으로 탈각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사의 진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섰다고 믿어왔기 때문인 것 같다. 돌이켜보면 한국문학 장 안에서 ‘여성문학’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은 2000년대 중반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 이전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1990년대 문학을 정리하며 벌어졌던 좌담들을 살펴보면, 여성문학은 깊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카테고리였다.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1990년대는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유독 활발했으며 그 성과도 높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 문학사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연대”이자, “페미니즘 문학이야말로 민족문학 이념의 위축 이후 이 땅에서의 가장 진보적이고 전위적인 문학운동”(이광호)이었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일상성의 미학적·도덕적 복권에 “일상성의 영역에 익숙하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현안들을 찾아내는 능력들”을 가진 여성작가들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도(황중연) 지적되었다.²⁾ 물론 그에 못지않게 회의적인 지점도 많았다. 창작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문학 자체가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는 입장에서 “도식적인 결론에 이른다는 문제”가 나타나며, 여성문학 비평의 측면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적 대립기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구심점을 잃어버린 채 “치외법권 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우려(김미현) 또한 대두되었다.³⁾ 여기에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중요한 문

2) 황중연 외, 『좌담-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44-46쪽.

제의식이 놓여있다. 여성이라는 특수성은 보편성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인가. 1990년대 대표 작가로서의 신경숙을 우호적으로 논의하는 좌담 과정에서, 한 남자 평론가가 신경숙을 ‘여류 작가’라는 편견 안에서 바라 보지 말고 ‘인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김동식) 말을 던질 때,⁴⁾ 여기에는 여성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위계적인 가치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문학사 안에서 여성문학의 성과가 가장 높이 평가되던 시점에서도 여성이라는 범주는 남성의 대타항이 아니라, 결여되거나 협소한 것으로서 인지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는 어떠 했는가. 2000년대 소설의 특징을 규정하고 새로움을 찾는 모색이 활발 하게 벌어졌던 것은 2005년경부터였다.⁵⁾ 사실상 무경향이라고 할 만큼 하나의 세대나 집단으로 특권화하지 않는 다종다양한 소설들은 1990년 대와는 달리 대타의식이 불러오는 강박과 포즈에서부터 자유로우며, 주체의 왜소화를 보여준다고 말해졌다. 이때 자주 호명되었던 박민규, 편혜영, 김중혁, 김애란, 박형서, 이기호, 한유주 등의 작가들은 ‘혼종적 글 쓰기 혹은 무중력 공간’(이광호), ‘망상의 메커니즘’(김형중), ‘탈현실의 문법과 상상력’(심진경), ‘탈내면의 상상력’(김영찬) 등으로 수식되었다. 1990년대와의 변별점을 위해 현실과 내면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공통성은 희미했고 그것은 ‘환상’이라는 느슨하고 추

3) 신수정 외, 『좌담-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2000년 봄호, 404-405쪽.

4) 황종연 외, 『좌담-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42쪽.

5) ‘한국 문학의 새로운 문법’(『문예중앙』, 2005년 봄호); ‘2000년대 문학의 새로운 모험’(『문학과 사회』, 2005년 여름호); ‘과잉의 상상력’(『문예중앙』, 2005년 여름호); ‘외계로부터의 타전’(『문예중앙』, 2005년 가을호); ‘2000년대 문학의 (불)연속성’(『문예중앙』, 2005년 겨울호); ‘2000년대 한국 문학이 읽은 시대적 징후’(『창작과 비평』, 2006년 여름호); ‘지금, 소설이란 무엇인가’(『세계의 문학』, 2006년 겨울) 등의 특집 속에서 당시 활발하게 담론이 전개되었다.

상적인 명칭으로나 간신히 묶이는 것처럼 보였다. 편집증적 유머와 거짓말로 대변되던, 다소 몸이 가볍던 이 주체들은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타자성과 윤리라는 키워드와 접촉한다. 타자성은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키워드였다. 여기에 포섭된 이들의 한쪽은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자, 외국인, 이방인 등의 ‘호모 사케르’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좀비, 늑대, 유령, 귀신 등의 주체성이 희박한 환상적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현실과 환상 양 극단에 놓여있던 이 타자들과 대면해 응답하는 문학적 태도가 바로 ‘윤리’였다.

2000년대 윤리 담론을 개별 주체의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것으로 읽어낼 때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가 누락되는 것은 아닌지, 당시 윤리 담론이 봉착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들이 적지 않았다.⁶⁾ 하지만 이는 문학은 철학 혹은 정치와 동일한 윤리를 요청받지 않으며, 이방인이라는 사건의 도래에 대한 문학적 충실성은 “모국어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응답하려는 고투 속에 있을 것”이라는⁷⁾ 말로서 반박되었다. 그리고 이는 ‘성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으로 이어졌다. 성(性)과 윤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김형중은 2000년대 여성성을 다루는 방식을 대변하는 듯한 이 평론에서 타자를 ‘이방인화’하지 않을 때 윤리가 발생한다는 가라타니 고진의 말을 경유해, 여성 역시도 이상화하고 신화화함으로써 ‘이방인’이 아닌 “윤리와 교통의 대상으로서의 타자”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⁸⁾ 그가 다루는 대상 텍스트는 진수미, 이민하, 진은영, 황병승, 김민정의 시와 김연수, 천운영, 배수아, 윤성희, 강영숙

6) 서동진, 『차이의 윤리라는 몽매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문학 | 판』, 2005년 가을호; 정영훈, 『윤리의 표정』, 『세계의 문학』, 2008년 여름호; 김미정, 『버려야만 적합한 것이 되는 것의 윤리』, 『문학동네』, 2008년 가을호 등.

7) 김형중, 『사건으로서의 이방인—‘윤리’에 관한 단상들』, 『문학들』, 2008년 겨울호, 50쪽.

8) 김형중, 『성(性)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 비평』, 2006년 여름호, 248쪽.

의 소설이다. 여기서 특히 남성 작가인 김연수의 소설과 황병승의 시를 포함시킨 데는 섬세한 분류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연수의 소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자친구의 죽음에 대한 탐색이 “언어로도 등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타자의 처소라는 사실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타자의 절대적 외부성을 인정한다고 보고, 황병승의 시코쿠로부터는 하나의 젠더로 고정되지 않는 “개별자들의 수만큼 많은 성적 정체성”의 존재를 읽어낸다. 작가나 인물의 성별을 다루는데 있어서 철저히 생물학적인 이분법적 성별의 도식을 해체하고, 타자의 절대적 외부성을 용인하는 윤리를 발생시키며, 타자들이 함께 기거하는 윤리적인 의사가족(pseudo-family)을 구성하기에 이르는 이 평론에서 좋은 여성성은 곧 윤리성과 완벽하게 등치된다. 이 평론을 예외적인 독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성성 자체에 대한 논의가 드물어지던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성의 새로운 의미 규정을 위해 분투하는 시대 감각에 충실한 글이었다. 천운영 소설에 대한 평론을 거의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독법은 사라지고 있었고, ‘백수들의 위험한 수다’라는 제목 속에 박민규, 정이현, 이기호가 함께 묶이고(정혜경), ‘문명의 심연을 응시하는 반문명적 사유’ 속에 천운영, 윤성희, 편혜영이 같이 논의될 때(박혜경) 이는 편협하다기보다 여성 작가들의 자리를 한정짓지 않는 독해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대는 한국 문학의 한 특수시대로서 존재했던 여성문학이 보편성을 얻고 오히려 그 부산물로 “남성문학이라는 특수시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⁹⁾ 2000년대 소설 담론이 창출해낸 윤리성의 보편적 틀은 사실상 차이로서의 여성의 자리를 지우고 있었다.

9) 손정수, 『남성문학의 시대?』, 『비평, 혹은 소설적 증상에 대한 분석』,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4, 118쪽.

그렇다면 문학 속에서의 윤리가 아니라, 여성주의 안에서의 윤리는 다른 것일까. 이 시대 대표적인 여성주의 철학자라 할 수 있는 버틀러가 비슷한 시기 2005년에 미국에서 출간한 『윤리적 폭력 비판(Giving an Account of Oneself)』¹⁰⁾을 보면, 그는 푸코가 말년에 천착했던 주체 형성 이론을 이어받아 “스스로의 존재론적인 지평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윤리적 주체를 말하고 있다. 인간이 일인칭 독백에 갇힌 채 구조를 반복하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말하면서 비로소 ‘나’가 되는 담론적 상황 속에 자리한다는 것, “타자와의 관계에서 기꺼이 훼손당하려는 자발성”에 대한 강조는 사실상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문학장 안에서 강조되었던 타자성 담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작가나 인물의 생물학적 성별을 철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여성 역시 다른 타자들에게 열려있을 때에만 비로소 또 하나의 주체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이 암묵적 정언명령은 2000년대 비평장 안에서 충실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 가장 최신의 여성주의 담론과 한국문학 텍스트가 조화로운 접합은 실제 현실과 무관한 것이었다.

2.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배수아의 경우

배수아를 두고 2000년대 작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는 ‘1990년대 작가군’ 중 한 명이었고, 2010년대 중반이 넘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스스로의 작품 세계를 갱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놀라운 작가다. 그의 작품의 오랜 생명력은 시대와 밀착하는 직접적인 소재나 주제를

10)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2013.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개별성에 주목하면서 무국적(無國籍)의 서사를 만들어내는데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꾸준히 비평장의 관심 안에 있어왔지만, 그의 소설에 대한 독해가 특히나 성(性)과 관련해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0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여기서는 배수아의 소설 중에서도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둘러싼 비평들을 논하고자 한다.

배수아의 『에세이스트 책상』¹¹⁾은 작가의 중요한 대표작들 안에 속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소설장 안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텍스트다. 이 소설의 화자는 겨울의 강한 추위 속에서 M과 나눴던 사랑을 기억 속에서 하나씩 길어 올리고, 그 여리고 연약했던 사랑이 어떻게 의심과 불안 속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잔인할 만큼 섬세하게 그려나간다. M과 내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화자는 M의 맨몸의 촉감을 더없이 감미롭게 음미한 뒤, 무언가 직감하며 비통에 젖는다. “연약하고도 연약한 M. 나는 견디나 너는 견디지 못하리라,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너는 견디나 나는 견디지 못하게 되리라.”(123쪽) 이 문장의 의도적인 목적어 생략으로 인해 화자의 ‘견딜 수 없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필연적인 파멸과 파국을 예감하는 모든 순간으로 확장되며 깊은 비애를 끌어온다. 인생의 가장 황홀한 순간은 가장 치명적인 비극의 직감과 맞닿는다. 이 감각의 불멸성과 보편성에 집중한다면 덧붙일 말은 무한해지겠지만, 이 보편에는 무언가가 누락되어 있다. 이 소설의 중반부가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처럼, 주인공인 ‘나와 M’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성별을 인지하며 소설을 읽는다면, 화자와 M의 사랑은 여러 사회적 창살 속에 갇혀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소설 초반부에 정

11) 배수아, 『에세이스트의 책상』, 문학동네, 2003.

신적 빈곤과 경박함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요아힘’은 돈에 연연하는 성정과 과시욕을 숨기기 위해서인 듯, M과의 사랑을 돈과 특이한 문화적 취향의 결합으로만 평가 절하한다. 이 앞에서 화자는 ‘빈곤’한 경제적 계급과 ‘동양인’이라는 인종적 정체성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며,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편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독일어 강습으로 인해 만나게 되는 ‘에리히’ 역시 “경멸감을 안고”(123쪽) 씩씩거리며 입술로 나와 M에게 다가오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동양인 여성 작가 ‘요코 타와다’와 동성애자로 알려진 음악가 ‘슈베르트’를 언급한다. ‘동양인 여성’이자 ‘동성애자’라는 화자의 정체성과 그의 사랑은 보편의 위치로 도약하지 못하고 모욕감과 함께 떨어져 내린다. 이때 M이 언어의 ‘정신성’과 ‘보편성’을 반박하듯 말하다 에리히에 의해 말이 잘리는 장면은, 마치 화자와 M의 사랑이 지극히 ‘육체적’이며 ‘특수성’을 가진 것임을 인정하도록 추궁 받는 순간처럼 보인다.

화자가 M으로부터 에리히와 잠자리를 한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은 강렬한 수치심과 함께 파국으로 흘러간다. 소설은 이때부터 다시 외부의 현실을 지우고, 이 사랑이 남겨 놓은 짙은 수치심과 그것마저 떨어지면서 M과의 기억이 서서히 추상화되는 과정을 그려간다. 그러니 이 소설의 서두에 자리한 압도적인 문장들이 음악과 죽음의 절대성에 대한 것임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가장 추상화된 예술인 ‘음악’과 가장 추상화된 형태의 삶인 ‘죽음’은 너무나 간절히 갈망했지만 끝내 가닿는데 실패한 M과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환유로 남는다. 그 사랑의 불가능과 고통스러운 고독을 정확하게 직시하며 화자는 “더 많은 음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린다.

그러니 이 소설의 공식적인 첫 독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찬의 해설에서 “M에 대한 사랑은 예술적·정신적 삶,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면적인

단독자로서의 삶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외화하는 것”으로 말해진 것은 작가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정확한 독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이후 펼쳐진 리얼리즘 독법에 대한 논쟁들이다. 이 소설 속 화자의 정신주의가 “영·육(靈肉)이 쌍전(雙全)하는 삶에 대한 얼마만큼의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판한 백낙청의 리얼리즘적 독법¹²⁾은 이후에 김영찬과 김형중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반박된다. 김영찬은 백낙청이 이 소설에서 표출되는 정신주의를 “다분히 ‘허위의식’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 소설의 성취를 “모더니즘으로서는 드물게도 작가 특유의 ‘허위의식’을 교정하는 ‘리얼리즘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화자와 M의 사랑의 의의를 이전까지와는 달리 “그 허무주의적인 개체적 고립의 충동을 ‘절대적 내면’이라는 고정점을 향해 수렴시키려는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을 그 사랑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¹³⁾ 김형중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이어 받으며, “문장 단위에서 용인되는 관습적 성차의 해소 시도”라는 한국문학사상 가장 급진적인 실험으로 인해 배수아가 “최소한 성별에 관한 한 ‘보편언어’”를 만들어냈음을 상찬한다.¹⁴⁾

이 글들은 모더니즘적 실험을 감행하는 소설에 대한 새롭고 섬세한 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섬세한 독해들 끝에 배수아는 일반적인 ‘페미니스트’ 내지 ‘여성 작가’와는 다른 자리에 위치한다. 동성애자를 성적 소수자이기보다 남성과

12) 백낙청, 『소설가의 책상, 에세이스트의 책상』, 『창작과 비평』, 2004년 여름호, 42쪽.

13) 김영찬, 『한국문학의 증상들 혹은 리얼리즘이라는 독법』, 『창작과 비평』, 2004년 가을호, 275-277쪽.

14) 김형중, 『민족문학의 결어, 리얼리즘의 결어』, 『창작과 비평』, 2004년 겨울호, 291-292쪽.

여성이라는 관습적 성차가 삭제된 ‘탈젠더적 존재’로 그려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그 결과 배수아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¹⁵⁾ “여성주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주의 문학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¹⁶⁾ 물론 이는 상찬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후에 이 소설과 관련해 전개된 논의도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한 욕망과 충동의 성별, 혹은 주체가 향유하는 방식의 성별”을 분별해 들어가 “사랑을 지향하지만 늘 욕망으로 균열되고 마는 삶에 대한 통찰”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이어진다.¹⁷⁾ 『에세이스트의 책상』이 탈성화(脫性化)된 방식으로 읽혀지는 가운데 거의 유일한 예외는, 이 소설이 “동성애적 텍스트임을 논증하는” 정치한 독해를 펼쳤던 차미령의 평론이다.¹⁸⁾ 이 글은 (성적) 대상의 측면에서 M의 ‘중성적’인 얼굴이 섹슈얼리티적 성격을 고정시켜 두고 있지 않고, 그들이 성을 향유하는 방식 역시 성애적이며, ‘에리카’라는 적대적인 남성 타자의 개입이 욕망을 억압하고 생산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2008년에 발표된 이 평론은 지금 시대의 문제의식을 선취하고 있는 중요한 글이다. 문제가 단순치 않은 이유는 배수아를 둘러싼 탈성화된 텍스트 읽기가 평론가들의 둔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한 독해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에세이스트의 책상』보다 일 년 앞서 발간된 『동물원 킷』에서 배수아는 서문에서 “주인공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겠다”고, “성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모든 정서의 상태를 부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⁹⁾ 작가가

15) 김형중, 『민족문학의 결여, 리얼리즘의 결여』, 『창작과 비평』, 2004년 겨울호, 291쪽.

16) 심진경, 『2000년대 여성문학과 여성성의 미학』,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234쪽.

17) 신형철, 『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153-161쪽.

18) 차미령, 『성정치에 관한 파편 단상-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다시 읽으며』, 『버려진 가능성들의 세계』, 문학동네, 2016.

19) 배수아, 『동물원 킷』, 이가서, 2002, 5-6쪽.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맥락 속에서라면 『에세이스트의 책상』에서 M의 성별을 감춘 이유 역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정서에 성별과 관련한 편견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런 독해로 충분한가.

페미니즘 이론 내부에서 젠더의 규제적 구성을 섹슈얼리티의 규제적 구성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은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주체화는 주체가 떠맡고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여러 정체성의 표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에세이스트의 책상』으로 돌아가, 화자가 느끼게 되는 모욕감이 ‘빈곤한 동양인 여성 동성애자’라는 여러 정체성의 표식들이 불가분으로 얽혀 생성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소설 속에 ‘나’와 ‘M’이 부유한 백인 남성 동성애자였더라도 그들은 동일한 곤란 속에서 보편을 증명해야 했을 것인가. 요아힘과 에리히는 동일하게 모욕과 위협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인가. 2000년대 소설 비평들은 원본이 없는 모방적이고 수행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통해, 이분법적 성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성별화 된 육체들에 가까이 가고자 했다. 그것은 사실상 버틀러로 대변되는 페미니즘 이론의 최전선에 밀착하는 일이었고, 라캉을 경유해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체적으로 더 없이 세련되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성차라는 헤게모니적 상징계를 전치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배수아 소설을 둘러싸고 성차의 흔적을 지우는 독법은 결과적으로 성을 육체와 무관한 초월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여성성에 대해서도 세속적인 것과 구분되는 성스러운 경외감과 아우라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3. 여성소설 비평의 세속화— 정이현의 경우

정이현은 첫 번째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와 장편 『달콤한 나의 도시』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 안에서 1990년대 여성작가들과는 확실히 변별되는 2000년대 여성작가로서 자리 잡았다. 물론 작가는 지금까지 계속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평적으로 정이현이 가장 주목 받았던 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당시 세계적인 문학 조류 중 하나였던 ‘칙릿’이라는 장르의 부흥과 맞물려 있었다. 2000년대 여성소설의 존재론적 지평을 고찰한 평론에서 정확하게 짚어준 것처럼, 물질, 육체, 정신, 관념이라는 각 항목들을 대변하는 여성작가 편혜영, 천운영, 김애란, 정이현의 시대적 대표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²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읽혔던 작가는 천운영과 정이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천운영을 둘러싼 비평적 키워드들이 ‘동물성’ ‘야생성’ ‘육식성’ ‘공격성’ ‘그로테스크’ 등의 시대 초월적이고 남성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데 반해, 정이현의 소설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키워드들은 ‘소비사회’ ‘속물성’ ‘유행’ ‘취향’ ‘위장’ ‘악녀’ ‘화장’ ‘연출’ ‘욕망’ ‘순응’ 등 시대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 채 여성의 부정적인 특성이라 인지되었던 요소들과 직결되는 면면을 보인다. 사실상 당대에 함께 ‘칙릿’이라 불리며 묶였던 작가들 중 가장 주목받았던 작가이자,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문학사에 안정적으로 등재되어 거론되고 있는 작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정이현을 둘러싼 소설 비평들은 다시 분별해 재독할 필요성이 있다.

정이현을 단독으로 다룬 첫 비평은 해설이었던 이광호의 『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으로 보인다.²¹⁾ 이 글은 이후에 정이현을 새로

20) 양윤의, 『광장(Square)에 선 그녀들』, 『문학동네』, 2010년 봄호.

운 여성 주체로 읽어내는 전반적인 틀을 마련한다. 정이현 소설 속의 캐릭터는 ‘악녀’로서 “위장된 순응”의 방식으로 세계에서 생존하고 복수”하며, “자기 욕망을 실현할 전략을 짠다”는 것이다. 이 위장술은 로맨스와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여성 개인을 호명하는 방식과 그 순응의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국면들을 드러낸다. 정이현의 위장술이 지배적인 상징질서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비평문은 현대 세계의 규율적인 권력의 메커니즘 안에서는 “저항 역시 그 권력 관계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를 둘러싼 권력의 외부에 대한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이 인식은 이후의 정이현의 소설에 긍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다른 평론에서도 암묵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이현 소설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는 ‘소비’였으며, 여성의 소비는 단지 패션이나 식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련한 욕망으로까지 연결된다. “소비를 향한 무한한 욕구와 로맨틱 러브를 향한 끈질긴 갈망의 교집합”이 정이현식 ‘칙릿’의 기저에 있었으며, 그 안에서 남녀의 스펙은 곧 관계의 보증수표로 “소비가능성=결혼가능성의 도식을 형상화”했다.²²⁾ 소비의 취향 자체가 캐릭터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기도 했다. 화려한 싱글이 되기 위한 소비 품목들을 나열하듯 보여주는 그녀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머스트 해브’ 아이템들은 “단지 삶의 증표가 아니라 그녀들의 아이덴티티 자체”였던 것이다.²³⁾ 그리고 이

21) 이광호, 『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3.

22) 정여울, 『칙릿형 글쓰기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소비 풍속도』, 『문학동네』, 2008년 겨울호.

23) 소영현,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와 여성소설의 후예들』,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178쪽.

런 소비하는 여성성,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금기라든가 낭만적 사랑의 환상으로 둘러싸인 위선적 가족·결혼제도를 폭파하는 모종의 힘”을 지닌 것으로 읽혔다.²⁴⁾

당시 비평들이 정이현 소설의 ‘새로움’을 읽어내는 데는 1990년대 여성소설이 대변하던 내면성과 진정성 테제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1990년대 여성문학의 인물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으로 삼고 집 밖으로 떠돌았고, 이를 섬세하고 복잡한 내면성으로 풀어냈다.²⁵⁾ 하지만 정이현 소설 속 ‘악녀’라 호칭되는 이 여성들은 세계와 자신의 사이에 간극을 절감하는 일 없이, 호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내면이 거의 거세된 즉물적이며 소비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 그런데 당시 정이현 소설의 도발적 여성들을 구성하는 새로움이란 ‘속물’로 곧바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아슬아슬함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비하는 여성을 욕망의 주체이자, 사소하지만 정치적 전복성을 읽어내는 많은 평론들이 이 특성이 곧 한계가 되는 양가적 측면에 주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소비와 결혼과 외부의 인정을 기준으로 삼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들은 처음부터 타자적인 것으로 가치화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기획에 기민하게 부응하는 부정적 주체를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정이현 소설 담론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평자들이 초기의 예외적인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거의 여성이라는 것,²⁶⁾ 정이현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24) 백지연,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부정되는가—이만교와 정이현」, 『창작과비평』, 2004년 여름호, 140쪽.

25) 소영현은 이런 1990년대산 여성소설의 자아찾기가 ‘틀 바깥’에서의 삶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의식의 각성을 이룬 여성과 그녀들의 실제적인 사회생활 사이의 간극에 대체로 무력했다고 바라본다. 소영현,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와 여성소설의 후예들』,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171-172쪽.

26) 이광호, 「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소비 행위에 대해 옹호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결국에는 그 행위에 내재된 체제 순응성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징후적이다. 대다수의 비평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언급되는 비평들은 다음과 같았다. 정이현 소설 속 인물들은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저항하는 ‘나쁜 주체’가 아니라, 주어진 이데올로기를 ‘자기 의지’로 굳건하게 실천하는 ‘착한 주체’”이고,²⁷⁾ 특히 소비와 관련해서 “욕망과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되는 그녀의 아이덴티티는 구별과 차이를 통해 복수적으로 구성되는 표피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며,²⁸⁾ “결국 물신화된 욕망에 스스로 포박된 여성의 모습은 작가가 기도했던 전술이 체제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소모적”인 것임을 입증한다는 것이다.²⁹⁾

정이현을 둘러싼 이 새로운 여성성에 대한 담론은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리스 그로이스는 ‘새로움’이 과거의 모든 것과 총체적으로 단절하는 절대적이고 특별한 것(something special)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존 질서가 가치화하는 아카이브와의 비교를 거쳐, 그 아카이브에 포괄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세속적인 공간이 동시대인들에게 차이가 있는 다른 것(something different)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새로움’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기입되는 세속적인 것은 “그 전통 속에서 이미 처음부터 타자로, 전통 자체에 대한 부정적 순응이라는 의미에서 타자로 가치화”되어 있었던 것일 수밖에 없다.³⁰⁾ 정이현 소설 속 주체의 새로움은 바로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2003와 우찬제, 『소비 사회의 접속과 천의 목소리—정이현론』, 『문학과사회』, 2003년 겨울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정이현론은 여성 평자들에 의해 쓰였다.

27) 이경진, 『속물들의 윤리학—정이현론』, 『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 423쪽.

28) 소영현,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와 여성소설의 후예들』,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180쪽.

29) 백지연,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부정되는가—이만교와 정이현』, 『창작과비평』, 2004년 여름호, 141쪽.

타자화되어 있던 ‘소비’를 기준으로 한다. ‘사치스러운 여자’를 둘러싼 오랜 고정관념—남성을 생산과 능동성과 합리성의 축에, 여성을 소비와 수동성과 비합리성의 축에 두는—은 그의 소설 속에서 잠시 가치 위치를 전도시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로서는 주체의 욕망이 달성되는 순간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더 깊이 종속되는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 소비의 틀 안에서 여성을 본다는 것 자체에서 “소비사회의 주변/희생양으로 고착화하는 담론의 블랙홀”³¹⁾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2000년대 비평 담론이 새로 주목했던 문제적 개인들 중 하나가 ‘백수’와 ‘루저’였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후반은 ‘88만원 세대’(우석훈)라는 명명과 함께 젊은이들을 구속하고 있던 여러 물질적이고 생활적인 조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박민규나 김애란 등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고시원과 옥탑방 등의 공간이 새롭게 주목되던 시기였다. 그 가운데 잉여적인 인물들의 권태와 수동적인 태도를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일종의 저항정신으로 해석하는 독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김애란, 윤성희, 윤이형, 편혜영, 김미월의 소설의 인물들을 묶어 어떤 불행과 고통 앞에서도 ‘무심한’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자율성의 최소 공간”을 만들어내는 ‘초연성의 존재 미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읽어내는 시선이 있었다.³²⁾ 한채호, 문진영, 박솔피, 황정은의 소설 속 인물들을 “자기계발과 속물되기를 적극 권유하고 강요하는 세상의 대오에서 이탈한 사람들”로서 ‘바틀비적 주체’, ‘무위(無爲)’의 존재방식으로 읽기도 했다.³³⁾ 그런데 사실상 이런 ‘무위’의

30) 보리스 그로이스, 『새로움에 대하여』, 김남시 옮김, 현실문화, 2017, 148쪽.

31) 박진, 『칙릿 세대, ‘여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학들』, 2009년 가을호, 84쪽.

32) 이광호, 『너무나 무심한 당신』, 『익명의 사랑』, 2009.

33) 복도훈,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하는’ 문학』, 『문학동네』, 2010년 가을호,

행위는 근본적으로 남성적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조이스 캐넌은 노동 계급의 젊은 남성이 자신의 남성성을 어떻게 모순적이고 복잡한 맥락에서 표출하는지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하기(Doing Nothing)’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하는 대신에 존재하기(Being but acting hard)’는 자신이 언제든지 이 상황을 다르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강력한 남성성을 구현하는 한 방식이라는 것이다.³⁴⁾ 2000년대 후반 이런 잉여적 주체들에 대한 긍정적 독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정이현 소설을 비롯한 칙릿 류의 소설들 속 적극적인 자기계발형 여성인물들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상징적이다. 이 여성들의 자본주의 사회 적응기/실패기는 그 능동성으로 인해 한층 더 속박한 것으로 비춰지며 한국문학장 속에서 서서히 배제된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잉여적 주체들에 대한 계보 그리기가 계속되어온 반면, 칙릿 서사 속에 등장하던 악녀형 여성주체들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변화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정이현의 이후 소설들에 대한 평론들 역시 칙릿의 순문학적 변형태로서가 아닌, 새롭게 타자를 발견하는 윤리성으로 소설을 읽어냈다. 어느 정도는 소설의 변화가 이런 평론 독법의 변화를 이끌었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소비하고 욕망하는 여성주체가 새로움을 담보하는 존재일 수 없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먼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이현의 소설 비평들은 1990년대 여성소설과의 비교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지만,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에 대한 너무나 여성적인 순응이라는 비판으로부터 텍스트를 보호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381쪽.

34) Joyce E.Cannan, "Is "Doing Nothing" Just Boys' Play?", *Criminology at the Crossroads*, edited by Kathleen Daly & Lisa Mah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178-184.

4. 신성화와 세속화 사이의 구조적 동형성

앞에서 분석한 배수아와 정이현을 둘러싼 비평적 담론들은 언뜻 상이한 것처럼 보인다. 배수아에 대한 비평들은 주인공이 맺은 과거의 동성애적 관계에 대해 예술적이고 정신적인 면면을 강조하며, 성적 차이를 소거한 채 ‘보편적’ 지점에 대해 말한다. 반대로 정이현에 대한 비평들에 서는 어김없이 주인공이 자본주의 속에서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여성적인 ‘특수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 요약하자면, 배수아의 소설 속 여성인물에 대해서는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신성화 전략이, 정이현의 소설 속 여성인물에 대해서는 신체적이고 물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세속화 전략이 수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둘러싼 담론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성은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즉 하나의 가면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체적 전략과 맞닿아 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고전적 모더니즘은 궁극적인 본질을 미리 전제한 상황에서 ‘본질/형상’, ‘정신/물체’, ‘이성/신체(감성)’, ‘남성/여성’, ‘주체/타자’ 등의 이원적 위계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체’의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사고틀은 ‘남성중심적’이며 게다가 ‘유럽(서구)중심적’이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이른바 ‘주체의 죽음’ 혹은 ‘탈중심화된 주체’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바로 ‘욕망’, ‘쾌락’, ‘감성’ 등의 담지자라고 할 수 있는 ‘신체’에 관심을 둔다. 그들에게 ‘욕망하는 신체’는 그동안 욕망의 대상으로 지배되고, 명명되고, 정의되고 임명되어왔던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욕망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했다.³⁵⁾

배수아의 소설을 둘러싼 담론은 이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담론자 중 하나인 '엘렌 식수'의 논의를 따른다. 기존의 글쓰기(남성적 글쓰기)가 위계성과 단절성에 종속된 글쓰기라면, 이것을 거부하는 글쓰기가 바로 여성적 글쓰기다. 식수는 "여성 안에는 항상 타자를 생산하는 힘"이 유지된다고 말하며, 남성 중심적 체계를 지배하는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육체를 글로 쓰는 양성적 글쓰기를 강조한다.³⁵⁾ 배수아가 소설 속에서 의도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암시하는 지표를 최대한 지웠던 것은 관습적인 젠더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소설적 장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배수아의 소설에 대한 비평적 독법들은 여성이기에 억압되고 착취되는 구체적인 물적 근거를 지우는 결과와 함께, 여성성을 일반적인 타자성으로 추상화·보편화시켰다. 이 성급한 보편성으로의 도약은 여전히 현실 속에 자리한 실질적인 차별의 구조 혹은 동성애라는 외상적 경험의 완전한 공유 불가능성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

정이현의 소설을 둘러싼 비평적 담론은 쾌락과 욕망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발산하는 신체, 이를 통해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상징체계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적인 소비주체를 강조한다. 자본주의적 소비사회 안에서 누구나 욕망을 소비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하는가에 따라 소비주체가 또 다시 서열화 된다. 정이현 소설 속 주체들이 소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 도리어 언제나 충분히 소비할 자유가 없음을 실감하며 박탈감 속에 공회전하는 이유도 여기서 연유한다. 이렇게 소비주체의 서열화를 철저히

35)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최일성, 『탈중심화된 주체, 혹은 '소비주체'의 등장』, 『정치사상연구』 제23집 1호, 2017 참조.

36)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출구』, 박혜영 옮김, 동문선, 2004.

드러내고 풍자하는 냉소적 주체이기 때문에 정이현은 미국식 칙릿과 구별되는 한국적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이현을 비롯한 당시 칙릿 소설들의 소비주체의 양상들이 2000년대 중반 한국에서 유행했던 ‘된장녀’와 같은 혐오 발화와 나란히 가면서 소모되었던 지점에 있다. 정이현 소설 속 주체의 새로움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타자화되어 있던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주체의 욕망이 더 긴밀히 추구되고 마침내 달성되는 순간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더 깊이 종속되는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인 듯 정이현의 소설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성의 윤리에 대한 성찰에 방점을 찍는 논의³⁷⁾도 있었지만, 이 윤리 역시 순수한 자기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세상이 요구한 반쪽자리라는 것은 그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배수아와 정이현을 둘러싼 2000년대적 비평들은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타자성이 생산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방식이 어떻게 ‘다름’과 ‘같음’의 원리를 변증법적 계기 속에서 통합시키는지 보여준다. 배수아의 동성애적 관계의 ‘다름’은 신성화되며 모든 사회적 규범과 관계를 삭제해버린 순수성과 절대성을 획득하며, 정이현의 소비주체의 ‘다름’은 세속화되며 사회적 규범에 더없이 잘 길들여진 여성적 주체를 탄생시킨다. 그러나 이는 모두 결국 여성들이 가진 현실적 욕망의 실존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2010년대 후반인 현재, 전 세계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물결 속에서 한국문학의 여성문학 비평은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1990년대는 여성문학의 부흥기였지만 어느 순간 확고한 여성문학의 범주가 여성작가들

37) 최성실, 『세계 저편의 타자들, 그리고 환상의 스크린 위에서 살아가기』, 『세계의 문학』, 2006년 겨울호.

에게는 벗어나야만 하는 하나의 굴레가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한국 문학은 여성문학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2000년대는 그야말로 어떤 것들도 다 여성문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러한 현상이 여성문학이라는 의미를 텅 비게 만들었다. 여성문학이 해방을 맞은 것일 수도 있고 도둑맞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평장 안에서 여성성은 타자성이라는 범주 안에 흡수되면서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여러 현실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까지도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2010년대의 여성문학 비평은 어떻게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여성문학의 틀을 다시 확립해 갈 것인가. 미셸 퍼거슨의 니나 파워에 대한 비판적 해설은 이에 대해 하나의 참조점을 마련해주는 것 같다. 그는 철학자 월터 브라이스 갈리(W.B. Gallie)가 페미니즘을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들(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이라고 불렀던 것에 주목한다.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들”에는 고정된 의미란 없으며, 언제나 그것들의 의미는 경합과 논쟁의 대상으로 불안정하게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페미니즘은 어떤 관념들의 단일하고 명확한 집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소적(可塑的 /plastic)인 것이다. 즉 페미니즘은 언어의 한 조각으로서 다중적이고 모순적이며 중첩적인 의미화를 수행할 수 있다. 단일한 페미니즘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³⁸⁾ 여성문학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안정시키거나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이때 여성문학의 순수성에 대한 욕망은 기묘한 방식으로 여성문학의 비정치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2010년대 여성문학 비평은 최근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퀴어 소설들에 주목함으로써

38) 미셸 퍼거슨, 『해설-페미니즘을 도둑맞는 게 가능할까?』, 니나 파워, 『도둑맞은 페미니즘』, 김성준 옮김, 에디투스, 2018, 152-153쪽.

이분법적 성별 체계의 범위를 넘어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여성과 퀴어에게 공동으로 놓인 문제 중 하나는 오늘날 그들이 공동으로 내몰려 있는 “불안정화(becoming precarious)”의 상태가 경제적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합리화 정책의 일환이자 차별적 젠더화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퀴어라는 존재는 “원본이 없는 모방적이고 수행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통해”, 이성에 규범성이 얼마나 헤게모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밀폐된 것처럼 보이는 체제 외부를 상상하도록 이끈다.³⁹⁾ 섹슈얼리티의 다양성과 복합적인 작동을 통해 기존의 젠더 규범성과는 다른 종류의 리듬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여성문학의 타자화를 피하며 여성문학 비평들을 새롭게 재편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9)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응산 역, 자음과모음, 2016, 91-94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배수아, 『동물원 킷』, 이가서, 2002.
_____, 『에세이스트의 책상』, 문학동네, 2003.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3.
_____, 『달콤한 나의 도시』, 문학과지성사, 2006.

2. 논문과 단행본

- 김미정, 「버려야만 적합한 것이 되는 것의 윤리」, 『문학동네』, 2008년 가을호, 416-434쪽.
김영찬, 「한국문학의 증상들 혹은 리얼리즘이라는 독법」, 『창작과 비평』, 2004년 가을호, 270-290쪽.
김형중, 「민족문학의 결여, 리얼리즘의 결여」, 『창작과 비평』, 2004년 겨울호, 286-303쪽.
_____, 「성(性)을 사유하는 윤리적 방식」, 『창작과 비평』, 2006년 여름호, 244-260쪽.
_____, 「사건으로서의 이방인-‘윤리’에 관한 단상들」, 『문학들』, 2008년 겨울호, 28-51쪽.
박 진, 「칙릿 세대, ‘여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학들』, 2009년 가을호, 74-93쪽.
백낙청, 「소설가의 책상, 에세이스트의 책상」, 『창작과 비평』, 2004년 여름호, 28-47쪽.
백지연,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부정되는가-이만교와 정이현」, 『창작과비평』, 2004년 여름호, 131-143쪽.
복도훈,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하는’ 문학」, 『문학동네』, 2010년 가을호, 377-402쪽.
서동진, 「차이의 윤리라는 몽매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디자인 멜랑콜리아』, 2009.
소영현,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와 여성소설의 후예들」, 『분열하는 감각들』, 문학과지성사, 2010, 166-181쪽.
_____,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동네』, 2017년 가을호, 519-539쪽.
손정수, 「남성문학의 시대?」, 『비평, 혹은 소설적 증상에 대한 분석』, 계명대학교출판부, 2014, 117-123쪽.
신수정 외, 「좌담-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2000년 봄호, 366-435쪽.
신형철, 「당신의 X, 그것은 에터카」, 『몰락의 에터카』, 문학동네, 2008, 142-162쪽.

- 심진경, 『2000년대 여성문학과 여성성의 미학』,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219-248쪽.
- 양경언, 『#문단 내 성폭력 말하기 운동에 대한 중간 기록』, 『여/성이론』, 2017년 하반기, 128-156쪽.
- 양윤의, 『광장(Square)에 선 그녀들』, 『문학동네』, 2010년 봄호, 389-410쪽.
- 이경진, 『속물들의 윤리학—정이현론』, 『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 417-436쪽.
- 이광호,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3.
- , 『너무나 무심한 당신』, 『익명의 사랑』, 2009, 171-184쪽.
- 정여울, 『칙릿형 글쓰기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소비 풍속도』, 『문학동네』, 2008년 겨울호, 274-293쪽.
- 정영훈, 『윤리의 표정』, 2018, 민음사.
- 차미령, 『성정치에 관한 파편 단상—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다시 읽으며』, 『버려진 가능성들의 세계』, 문학동네, 2016, 372-397쪽.
- 최성실, 『세계 저편의 타자들, 그리고 환상의 스크린 위에서 살아가기』, 『세계의 문학』, 2006년 겨울호, 610-619쪽.
- 최일성, 『탈중심화된 주체, 혹은 ‘소비주체’의 등장』, 『정치사상연구』 제23집 1호, 2017년 봄호, 31-49쪽.
- 황중연 외,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 미셸 퍼거슨, 『해설—페미니즘을 도둑맞는 게 가능할까?』, 니나 파워, 『도둑맞은 페미니즘』, 김성준 옮김, 에디투스, 2018, 141-156쪽.
- 보리스 그로이스, 『새로움에 대하여』, 김남시 옮김, 현실문화, 2017.
-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출구』, 박혜영 옮김, 동문선, 2004.
-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2013.
-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웅산 역, 자음과모음, 2016.
- Cannan, Joyce E., "Is "Doing Nothing" Just Boys' Play?", *Criminology at the Crossroads*, edited by Kathleen Daly & Lisa Mah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172-187.

Abstract

A study for Sacralization and Secularization of Feminine Novel Criticism
in the 2000s
— focusing on Bae, Su-ah and Jeong, Yi-hyun

Kang, Ji-Hee(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consider criticisms of feminine novels in the 2000s when the term 'feminine literature' began to disappear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ry history. It specifically delve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s written in the 2000s and tries to seek novelty since approximately 2005. During this time, analyses for novels emphasized the themes of escaping from reality and inner side to be discriminated from novels in the 1990s and began to access those of otherness and ethics in the late 2000s. In this paradigm, good femininity is regarded as ethicality and in fact it was removing the spaces for women as distinction.

To see how the space for feminine literature being erased by facing with the newest feminism paradigm, this study meta-reviewed the criticisms for 『에세이스트 책상』 of Bae, Su-ah and first 10 novel collection 『낭만적 사랑과 사회』 and full-length novel 『달콤한 나의 도시』 of Jeong, Yi-hyun which were published in the middle- and late 2000s. The reason for why these two writers' criticisms selected as samples is that criticisms about Bae, Su-ah and Jeong, Yi-hyun in feminine novels were representing the most different reading method.

The criticisms about Bae, Su-ah emphasized each of artistic and spiritual aspect about main character's homosexual relationship in the past and told 'universal' point without sexual distinction. On the contrast, the criticisms about Jeong, Yi-hyun emphasized performing 'special' feminine strategies of main character between adaptation and resistance in Capitalism.

However, if the paradigms were analyzed relating to these two writers, which might seem to be divided into sacralization and secularization, they commonly premise post-modern feminism's dismantling strategy. The criticisms in the 2000s which surrounding Bae, Su-ah and Jeong, Yi-hyun, represented how post capitalism

society method, which producing more sophisticated and delicate otherness than those of past, integrated the principles of 'distinction' and 'equivalence' in dialectical motivation. For Bae, Su-ah's homosexual relationship, its 'difference' was sacralized and all the social rules and relationships were deleted with achieving purity and absoluteness. Jeong, Yi-hyun's consuming subject's 'distinction' was secularized and made progressive and new feminine subject. Indeed, this seemed to hide the existence of women's realistic desire. In this study, which figures out feminine novel criticism's performance method and its limitation in the 2000s, it tries to become a small reference point in the feminism movement in society with entering late 2010s for how to criticize feminine novels again.

(Keywords: feminine novel criticism, Bae, Su-ah, Jeong, Yi-hyun, desexualization, sacralization, secularization)

논문투고일 : 2018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15일